



## “통일은 내일? 통일은 내 일!”

평화재단의 활동은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참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평화재단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온라인 신청

평화재단 홈페이지 후원회원 가입 | [www.peacefoundation.or.kr](http://www.peacefoundation.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 484201-01-154897 재단법인평화재단



문의

02 581 0581 (후원회원담당자) | [staff@peacefoundation.or.kr](mailto:staff@peacefoundation.or.kr)



후원회원이 되시면 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포럼, 심포지엄,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he Peacefoundation

---

# Annual Report **2016**

---

평화재단 2016 활동보고서



ANNUAL REPORT 2016

# 2016 평화재단 활동보고서

##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6

### 평화재단 2016 활동보고서

**펴낸날** 2017. 3.

**펴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62 (06640)

**연락처** TEL. 02 581 0581 / FAX. 02 581 4077 / E MAIL. [staff@peacefoundation.or.kr](mailto:staff@peacefoundation.or.kr)

**홈페이지** [www.peacefoundation.or.kr](http://www.peacefoundation.or.kr)

**페이스북** 페이스북 검색창에 '평화재단'을 검색하세요

I. 인사말	4
II. 평화재단소개	6
III. 2016 사업별 활동보고	8
1. 평화연구원	10
1) 전문가모임	12
2) 현안진단	13
3) 전문가포럼	14
4) 정세토크	17
5) 긴급좌담회	19
6) 공동포럼	21
7) 심포지엄	22
8) 워크숍	24
2. 평화교육원	26
1) 평화리더십아카데미	28
2) 통일열린마당	31
3) 기획강좌	32
3. 평화운동	34
1) 청년포럼	36
- 청년학교	38
- 2016 성년의 날 맞이 청춘콘서트 & 청춘박람회	41
- 김제동과 우리들의 마이크	43
2) 평화통일 네트워크	45
-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인 모임	46
3)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48
IV. 재정보고	52
V. 함께하는 사람들	52



## [ 2016 평화재단 연례보고서를 펴내며 ]

###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자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검찰개혁은 왜 필요하고, 언론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등...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성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시린 손을 비비며, 밝은 눈빛으로, 두 손 곱게 받든 촛불 켄 컵 하나 들고 우리는 지난 연말 광화문에 섰습니다. 청계천에서 처음 불타올랐던 촛불은 매주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을 돌고 돌아 청와대 진입로까지 촛불바다로 넘실거렸습니다. 곧 햇불이 되어 전국 각지로 번져갔습니다.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길을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평화재단은 새로운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와 시민 교육, 그리고 대중 운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짜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짙든 지는 이미 몇 해 전이었습니다. 촛불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만지작거린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적인 정국이 막막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진 사회네트워크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한해 평화재단 사업 중에서 특히 청년들 스스로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운동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1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청춘콘서트와 청춘박람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사단법인 김제동과 어깨동무와 청년포럼 공동주최로 청년들과 공감하는 공익콘서트도 9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장’을 만들고,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통해 평화재단은 ‘청년운동’을 계속해나가고자 합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를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현안은 매우 답답한 형국이 전개됐습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사안일수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할 텐데,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비쳐졌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보다 냉철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전망에 집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중대한 현안일수록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에 함몰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평화교육원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통일열린 마당’을 다양한 주제로 기획해왔습니다. 특히 통일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역사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역사인식에 관한 강연을 다각도로 접근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통일’이 박제화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시대의 과제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도록 시민과 호흡하는 강연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등의 네트워크활동을 통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종교인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원로들간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촛불로 드러난 국민들의 분노와 새로운 희망을 담은 사회적 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던 2016년 한해에도 성심을 다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전을 만들고자 노력한 연구원 운영위원들과 교육원 강사님들, 청년포럼의 자문위원들, 조용히 뒷바라지해온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2017년 3월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북한 5차 핵실험,  
북한 위기의 진단  
2016년 9월 17일(토) 저녁 7:00~9:30 장소

이 정 철

박 영 준

고 경 번

##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합니다.

Expert  
Forum  
전문가포럼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 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 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16 사업별 활동보고

## 01 평화연구원



- 1) 전문가모임
- 2) 현안진단
- 3) 전문가포럼
- 4) 정세토크



- 5) 긴급좌담회
- 6) 공동포럼
- 7) 심포지엄
- 8) 워크샵



## 02 평화교육원



- 1) 평화리더십아카데미
- 2) 통일열린마당
- 3) 기획강좌

# 03

## 평화운동

### 1)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

- 청년학교
- 2016 성년의 날 맞이 청춘콘서트 & 청춘박람회
- 김제동과 우리들의 마이크



### 2) 평화통일 네트워크

-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종교인 모임



### 3)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 1. 평화연구원

2016년은 나라 전체가 혼돈 속에 침잠해버린 한 해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정세가 암울하게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전경 폐쇄하는 초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전략에 따른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나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절망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 오후 2:00-4:30

장소 : 프레스

안보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한 선택들은 악수뿔手的 연속이었습니다. '안보'와 '외교'는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7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세졌고, 북한은 보란 듯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몰린 가운데도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둘러 체결했습니다. 동북아의 전략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가는 형국입니다.

2016년 새해 벽두에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현안진단 제 134호)고 일성했던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의 소망은 소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과연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제대로 '실천'해 온 것인지 뼈아픈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정성어린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봉오리를 피워낼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나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연구위원들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재빠르게 진단하고 추이를 전망하면서 ‘현안진단’ 칼럼의 방향을 논의·조율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위원들이 추가영입되면서 보다 다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었고, 인터넷 대안언론매체인 ‘프레시안’에 연재되면서 보다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평화연구원 운영위원들의 기획 속에 현안마다 전문가포럼, 정세토크, 긴급대담 등 다양한 형식의 토론장을 통해 밀도 깊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과의 소통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모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전문가들이 모여 1년 넘게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동북아 질서재편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평화통일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평화전략팀’에서는 하반기 동안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외교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사회 난제들을 통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풀어보려고 했던 ‘통일플랫폼 모임’은 차기 정부의 새로운 사회비전 정책방향을 구상하는 ‘사회비전팀’으로 진화했습니다. 구성원의 면모도 다양해졌습니다. 충분한 준비모임 기간을 갖고, 2017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및 외교안보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를 감시 견제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 민간단체로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통일외교정책이 실패를 되풀이하는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데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심을 다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하고,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연구·운영위원들과 조용히 뒷바라지해온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1. 평화연구원

## 1) 평화연구원 | 전문가모임

### 통일플랫폼 시즌2 모임

일시	내용
2016.03.04	통일플랫폼 시즌2의 활동방향

###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연구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6.01.04	이수형 “동아시아 정세 흐름의 방향성과 주요 쟁점” 이문기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 평가와 바람직한 균형외교 전략의 모색” 김현욱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
2016.01.28	홍현익 “한·러관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한·러관계 발전방안” 신정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아베내각-박근혜정부를 중심으로” 이승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안보적 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
2016.02.24	김경숙 “한국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치”
2016.05.20	한국외교의 출구전략
2016.07.18	최용한 “남북교류 추진 전략 - 기존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2016.08.25	자료집 “동북아 질서재편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초고 검토
2016.09.30	자료집 “동북아 질서재편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수정원고 검토
2016.11.04	이수형 “대한민국의 안보정체성”
2016.12.20	자료집 “동북아 질서재편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발간

### 평화외교전략 연구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6.10.10	북핵 실태와 비핵화 전략
2016.10.20	중-미관계 변화와 한국
2016.11.04	재기하는 일본과 한일관계
2016.11.18	트럼프의 미국: 한미관계와 동북아정세 전망
2016.11.30	러시아 대외전략의 이해 - 유라시아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 비전 모색을 위한 전문가모임

일시	내용
2016.11.29	자기소개 및 한국사회 현시국에 대한 견해
2016.12.09	사회비전팀 모임 운영방안 논의
2016.12.21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아젠다 초고 논의

## 2) 평화연구원 | 현안진단

호수	발행일시	주제
134	2016.01.05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135	2016.01.24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136	2016.02.12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137	2016.02.23	파탄난 남북관계,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38	2016.03.05	정전(停戰) 체제에서 농성 - 공성전(籠城-攻城戰) 체제로의 전환
139	2016.03.22	'갈 데까지 가보자'는 국가전략이 아니다
140	2016.04.06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141	2016.04.18	대북정책, 3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142	2016.05.03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의 길을 찾아라 -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에 즈음하여
143	2016.05.20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향후 북한의 진로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144	2016.06.10	정치적 현실주의를 회복하여, 외교에 기회를 주자!
145	2016.06.21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할 때다
146	2016.07.06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결단
147	2016.07.17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
148	2016.08.16	'북핵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149	2016.09.06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150	2016.09.11	북핵 위협의 현실화, 비핵화가 답이다
151	2016.10.05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 '남으로 오시라'?
152	2016.10.22	함경북도 수해와 남북한의 침묵
153	2016.11.10	국정동력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 일'
154	2016.11.25	거대한 변화 속에 들어간 세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155	2016.12.06	대북제재결의 2321호의 알고리즘
156	2016.12.22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 3) 평화연구원 | 전문가포럼

제72차 전문가포럼 | 2016년 2월 24일

2016년이 밝아오자마자 북한은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한데 이어 설을 목전에 두고 인공위성을 탑재한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의 착수를 발표한데 이어 개성공단사업의 전면적 폐쇄를 선언했다.

2015년 8.25 남북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남북민간교류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였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 같은 흐름은 정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갔다. 세계적, 지역적으로 세력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 중, 일 강대국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국익에 근거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격랑의 한반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붕괴론 같은 규범적 준거에 의한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에 근거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문제도 우리의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주 제** 북한 로켓발사와 개성공단 전면폐쇄, 기로에 선 남북관계
- 사 회**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원장)
- 발표①**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정치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 발표②** 딜레마에 빠진 통일대박론과 대북정책의 방향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및 연구실장)



2016년 1월 1일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북한의 노동자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물론 받은 임금의 상당부분이 국가에 강제 상납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4월에는 중국에 있는 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하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국면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함께 사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했다.



**주 제**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인권문제

**사 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①**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와 인권  
임예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발표②**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현황  
오정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토 론**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영환 (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대표)



제74차 전문가포럼 | 2016년 5월 23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넘어서 가동 12년,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무참히 꺾여졌고 아직도 재가동은 꿈으로 남아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 떠난 개성공단에는 시설물, 장비, 원자재 등 우리의 재산이 남아 있고 특히 전기 공급 중단으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

‘언제 재가동할 수 있는가?’와는 별개로 가동중단 기간 동안에 ‘우리 재산을 어떻게 보호·유지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가?’ 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개성공단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공단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았다.

**주 제** 개성공단 중단 후 자산보호와 안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사 회** 고경빈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표①** 개성공단 중단 후 자산보호의 법적 전망  
김광길 (수원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발표②**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장기방치에 따른 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김은중 (전 LH공사 개성사업처장, 현 남북물류포럼 이사)

**토 론** 김진향 (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중태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재영솔루텍 회장)

## 4) 평화연구원 | 정세토크

2016년 1월 정세토크

### 주제 | 북한 4차 핵실험과 격랑의 한반도

2016년 벽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고 이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한중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쳐 한국 외교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무리수인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온 북핵 문제 해법의 한계인가? 전격적인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의도와 파급력,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	일시	사회자	패널	주제
1	2016.01.21	고경빈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북한 4차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
2	2016.01.22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진(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북한 4차 핵실험의 숨은 그림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향방

2016년 4월 정세토크

### 주제 | 4.13 총선 평가와 전망 :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길은?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나 야당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총선결과, 왜 예측이 빗나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자리였다.

회	일시	사회자	패널	주제
1	2016.04.1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국제학과 교수) 김두수(NEXT KOREA 연구소 소장)	4.13 총선 평가와 전망 :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길은?



2016년 5월 정세토크



**주제 I 북한 제7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의 ‘어떤’ 개막인가?**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5월 6일~9일까지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었다. 당대회란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5년마다 열리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일독재체제를 강화하며 당 대회 없는 노동당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당대회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북한의 실상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층 분석해보았다.

회	일시	사회자	패널	주제
1	2016.05.17	고경빈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구(뉴시스 북한전문기자)	북한 제7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의 ‘어떤’ 개막인가?
2	2016.05.24	고경빈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서훈(전 국가정보원 북한담당차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관세(전 통일부 차관, 경남대 석좌교수)	북한 제7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는?

## 5) 평화연구원 | 긴급좌담회

긴급좌담회 | 2016년 9월 17일

지난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는 9월 9일 9시 30분 5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이 핵탄두 폭발실험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대책은 대북 압박수준의 강화, 핵도발 시 응징 보복과 자체 핵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안의 위험성, 긴급성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상기하며 대북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다시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를 동결시키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으며, 북핵 위기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해보았다.

**주 제** 북한 5차 핵실험, 북핵 위기의 진단과 해법을 묻는다

**사 회** 고경빈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표①** 5차 핵실험의 실태와 향후 북핵위기 국면 진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②** 북한 핵실험과 각국의 대응 전망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발표③** 북핵위기 해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긴급좌담회 | 2016년 11월 11일



여론조사와 일반적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정치를 넘어서 세계 정치, 경제, 민주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의 언행과 정책방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놀라움을 뒤로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법을 찾아 나섰다. 우리의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한미관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절박하다. 게다가 민족사에 유례없는 '식물정부'의 위기 속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흔들림 없는 국정을 지속해나가야 할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책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

**주 제** 미국 차기 대통령 선출, 어떤 미국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 회** 조 민 (평화교육원 원장)

**발표①** 미국 차기 대통령 선출에 따른 국제정세 전망 및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발표②** 미국 차기 정부의 경제 변화 전망과 한국 경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6) 평화연구원 | 공동포럼

공동포럼 | 2016년 3월 15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이후 대북제재 국면이 전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무산되었으며 사드 배치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역대 비군사적 경제조치로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월 10일 새벽, 북한은 핵탄두의 실물모형을 공개하고 남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의 시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치킨게임을 연상하는 강대강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래전략연구원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북핵 위기 국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 전문가포럼을 긴급히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 4.13 총선과 미국과 중국의 안보적 셈법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지혜를 모아보았다.

**주 제** 북핵 위기국면의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사 회** 고경빈(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 표** 구해우(미래전략연구원 원장)

**토 론**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혜정(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문기(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 7) 평화연구원 | 심포지엄

2016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 2016년 6월 14일



동북아는 핵문제와 관련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으며, 최근에는 후쿠시마에서 초유의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핵과 인류 평화와 안전의 함수관계에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위기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 한중일 세 국가에 세계 어느 곳보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그만큼 위험지수도 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동북아에는 이 두 현실이 함께 얽히면서 위험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핵안보와 핵안전이 우리의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의 실체와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원전 가동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은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등 내빈들과 260여명의 청중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먼저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이 북핵문제는 국제 공조체제에 맡기지 말고 우리나라 스스로 통일과 연계하여 해결해야하는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계속되는 원전 건설의 위험성을 깨닫고 우리의 전반적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기초발제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통일은 달성되어야하며 지금부터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은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2부에 걸쳐 진행되었다. 1부는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주제로 북한의 핵위협과 핵안보에 대해서는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이자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어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해정 교수는, 현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2부에서는 ‘한중일 원전과 탈원전 발전모델’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남기정 교수는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원전의 위험성과 동아시아 휴전 체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했고, 김혜정 위원장은 한중일 핵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탈원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원전의 위험성과 새로운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발표자와 사회자, 청중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평화와 안전한삶과의 관련성, 북한 지도부의 핵문제와 별개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 행사개요**
  - 주 제**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 일 시** 2016년 6월 14일 (화) 오후 2시~6시
  -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 여는말**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
  - 기조발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변화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 사 회**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 세션1.**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 발표①** 북한의 핵위협과 핵안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 발표②**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세션2.** 한중일 원전과 탈원전 발전모델
  - 발표①**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사회와 시민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발표②** 탈원전 지속가능 발전모델은 가능한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토 론** 이문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 닫는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 8) 평화연구원 | 워크숍

제21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2016년 6월 24일~25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2016년 6월 24일~25일 이틀 간 ‘시대 전환기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21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을 가평 교원 비전센터에서 진행했다. 3마당으로 구성하여 각 부문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비전에 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1마당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시대 전환기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비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먼저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무인화,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들과 인공지능 정부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이 인공지능과 로봇 윤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정제도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저녁식사 후 2마당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문제의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마당 역시 조한범 연구위원이 진행했고, 조민 평화교육원장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시장 문제, 국가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가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핵심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지방분권화와 다당제에 기반한 연합정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조민 원장의 발표 후 헌법 개정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2마당은 법륜 스님의 정리로 마무리되었다.

다음날 오전 ‘향후 전망과 우리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3마당은 평화재단 고경빈 이사의 사회로 어제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중점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헌법 개정, 지방 분권, 다당제, 영국의 브렉시트,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 특히 전날 있었던 브렉시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고 반세계화, 분리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한 우려 의견이 있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념 갈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3시간 동안의 토론 후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의, 토론에 참여해 준 전문가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과 견해차이로 일어나는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에 관한 이야기로 워크숍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 행사개요

- 주 제** 시대 전환기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비전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 25일(토)  
**장 소** 경기도 가평 교원 비전센터



## 프로그램

- 제1마당** 시대 전환기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비전  
**여는 말**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  
**사 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①** 파괴적 기술의 발전과 미래 정부의 역할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②** 4차 산업혁명 속 국정과제와 민주주의의 방향  
 김소영 (KAIST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 질의응답 및 토론

- 제2마당**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문제의식  
**사 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조발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문제의식  
 조 민 (평화교육원 원장)



## 집중토론

- 제3마당** 향후 전망과 우리 과제  
**사 회** 고경빈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 중점토론

- 닫는말씀** 법 료 (평화재단 이사장)

## 2. 평화교육원

### 북한 핵실험

의 위기감으로 시작된 2016년 대한민국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결정 등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한해를 보냈다. 그 속에서 평화교육원은 이런 한국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코리아가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의 현실 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평화리더십 아카데미는 대중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 시작한 통일열린마당은 2016년에도 이어져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 정치,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한반도 통일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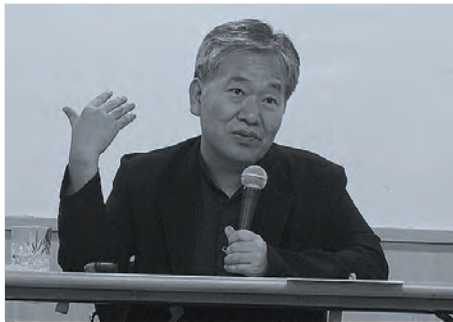
김진향 교수님의 강좌를 통해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중단 이후의 상황과,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았다. 새터민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기자의 강좌에서는 향후 통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들어보았고, 손석춘, 정지우 작가들의 강좌에서는 분단으로 비롯된 우리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작품을 통해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 2. 평화교육원

### 1) 평화교육원 |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리더십아카데미는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민족의 통일과 인류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리더그룹을 양성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었다. 2009년 9월 3일 평화리더십아카데미 1기를 개강하여 현재 15기까지 꾸준히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사회 곳곳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제14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일 시** 2016년 3월 17일 ~ 6월 9일, 매주 목요일 19:00, 총 12주

**참가자** 전체 38명 등록, 32명 수료

주	날짜	프로그램	강사	주제
	16.03.17(목)	입학식		평화리더십아카데미 가는 길
1주	16.03.18(금)	입학워크숍	역사인식	조민 조민 (평화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03.19(토)		삶, 행복	법륜스님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2주	16.03.24(목)	강의	정의	최상용 최상용 (전 주일대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3주	16.03.31(목)		경제	김주현 김주현 (현대 경제연구원 고문)
4주	16.04.07(목)		리더십	윤여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5주	16.04.14(목)		정치	김병준 김병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6주	16.04.21(목)		문화	임마뉴엘 (이만열)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교수)
	16.04.23(토) 04.24(일)		경주워크숍	통일
7주	16.04.28(목)	강의	법	김선택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8주	16.05.12(목)		국제	송민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9주	16.05.19(목)		문화	강헌 강 헌 (음악평론가)
10주	16.05.26(목)		사회통합	법륜스님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1주	2015.06.04	라운드테이블		<b>변화를 꿈꾸는 상상력을 펼쳐라!</b> (조별발표 및 교육원장 정리강의)
12주	2015.06.11	수료식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수료증 수여)



제15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

**일 시** 2016년 9월 22일 ~ 12월 8일, 매주 목요일 19:00, 총 12주

**참가자** 전체 37명 등록, 33명 수료

주	날짜	프로그램	강사	주제
	16.09.22(목)	입학식		평화리더십아카데미 가는 길
1주	16.09.23(금)	입학워크숍	역사인식	조민 조민 (평화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09.24(토)		행복관	김홍신 김홍신 (작가, 전 국회의원)
2주	16.09.29(목)	강의	정의	최상용 최상용 (전 주일대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3주	16.10.06(목)		정치	윤여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4주	16.10.13(목)		문화	강헌 강 헌 (음악평론가)
5주	16.10.20(목)		안보평화	송민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6주	16.10.27(목)		과학기술	이정동 이정동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교수)
	16.10.29(토) 16.10.30(일)		경주워크숍	통일
7주	16.11.03(목)	강의	국가개혁	김병준 김병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8주	16.11.10(목)		여성·평화	이김현숙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
9주	16.11.17(목)		사회통합	법륜스님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0주	16.11.24(목)		경제	채배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주	16.12.01(목)	라운드테이블		변화를 꿈꾸는 상상력을 펼쳐라! (조별발표 및 교육원장 정리강의)
12주	16.12.08(목)	수료식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수료증 수여)

## 2) 평화교육원 | 통일열린마당

분단체제가 만든 우리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념대립과 남남갈등은 세대분열, 계층분열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논의와 국론통합에 커다란 장애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현실앞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유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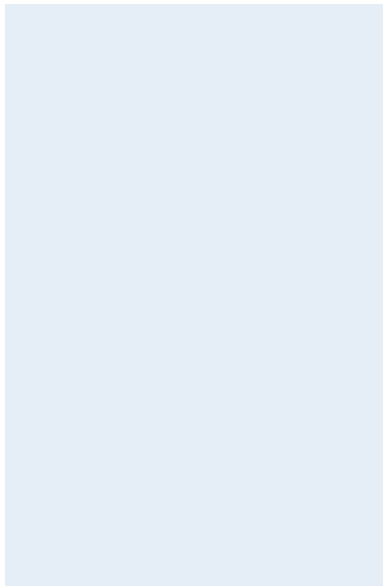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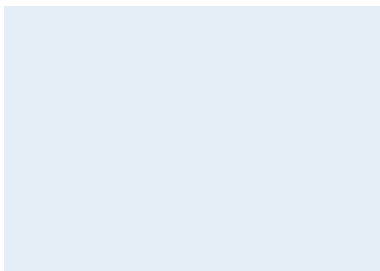


일시	강의주제	강사
16.03.12	남북관계에서 본 개성공단의 의미	김진향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16.05.02	주성하기자가 바라본 한국정치 지형과 북한	주성하 (북한출신 동아일보 기자)
16.06.25	독립운동사 복원, 왜 통일코리야로 가는 열쇠인가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김홍신 (대발해의 작가)
16.08.29	통일시대를 위한 역사인식	손석춘 (코레예바의 눈물의 작가)
16.09.27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을까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역사학자)
16.10.26	분노사회와 피스메이킹	정지우 (분노사회의 작가)
16.12.19	촛불 혁명앞에서!	조 민 (평화재단 교육원 원장)

### 3) 평화교육원 | 열린이아카데미 <핵을 넘어 평화로>

경주에서 계속된 강진과 여진으로 국내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핵위험으로부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핵에 대해 얼마나 안전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핵발전소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는 시간이었다.

일시	강의주제	강사
16.10.31	통일시대, 핵공포를 안고 갈 것인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	이윤숙(YWCA 운동국부장)
16.11.07	탈핵과 비핵만이 살길이다. 독일사례로 미래문명을 디자인하다	김해창(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3. 평화운동





**P**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 3. 평화운동

## 1) 평화운동 | 청년포럼

올해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얼어붙었고, 4월 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결로 4차 산업과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안전과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은 한중관계를 악화시켰다.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권력자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던 한해였다.

이로인해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6차 촛불집회에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인 230만여명이 광장에 운집하였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촛불 집회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평화시위, 쓰레기 없는 깨끗한 집회가 되어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속에서 한명의 리더에 의한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변화의 바람과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포럼은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기치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새로운 백년을 열어가는 청년포럼’은 올해 전국 22개 지역에서 청년학교 7기, 8기를 진행하면서 청년학교를 브랜드화 하는 단계였다. 청년학교는 통일사회 준비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자신의 삶을 사회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배우고, 촛불정국과 함께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했다.



청년들이 마음껏 웃고 꿈꾸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작년 전국 14개 도시를 순회하였던 청춘콘서트는 올해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참가자 1만 5천명이 운집해 5월 시청광장과 무교로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청년포럼 사상 최대 규모의 콘서트를 통해 내부 활동가들의 능력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이크의 주인은 시민이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청년포럼과 사단법인 김제동과 어깨동무가 연대한 공익콘서트 <김제동과 우리들의 마이크>가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렸다. 김제동씨와 함께 전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 청년학교

‘깨어있는, 함께하는, 실천하는 청년공동체’를 지향하며 청년들의 인생관, 사회관, 시대관, 실천론의 4가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22개 지역에서 4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 제7기 청년학교

**입학정원** 543명

**수료정원** 326명

**일 시** 2016년 3월 17일(목)~6월 4일(토) (주1회, 10강)

**장 소** 서울, 인천, 고양, 수원, 안산, 원주, 대전, 청주, 전주, 익산, 광주, 대구, 경산, 구미, 경주, 포항, 울산, 부산, 김해, 창원, 진주, 통영 총 22개 지역 / 전국 42개의 청년학교 개설

구분	수도북부								
	마포	신촌U	고양	종로	성북	성동	광진	인천	부평
입학정원	22	19	8	24	12	9	10	9	10
수료정원	14	11	4	14	4	5	5	6	6

구분	수도남부						
	원주	서초	서초U	강남	송파	수원	안산
입학정원	9	51	12	22	8	14	9
수료정원	8	34	10	9	4	7	7

구분	대구경북									
	대구중구	대구범어	경산	구미	포항남구	포항북구	경주	울산중구	울산달동	울산무거
입학정원	28	7	8	7	10	8	6	17	9	14
수료정원	16	4	7	2	6	5	4	13	5	8

구분	부산경남							
	부산서면	부산금정	부산해운대	김해	창원	진주	통영	
입학정원	35	18	11	4	17	10	8	
수료정원	24	12	6	3	12	5	4	

구분	충청전라								
	대전둔산	대전관평	대전은행	청주흥덕	청주분평	전주동부	전주서부	익산	광주
입학정원	18	4	10	13	6	8	5	6	14
수료정원	7	3	5	7	2	8	4	1	5

일정		커리큘럼	
입학식	3월 3주	입학식	가슴 뛰는 만남, 청년학교를 소개합니다.
1강	3월19일 - 20일	첫걸음워크숍	인생나누기 '우리들의 청춘이야기'
2강	3월 4주	인생관1	연애이야기 '따로 또 함께' 쿨한 사랑학 개론
3강	4월 1주	사회관1	사회이야기 '마음껏 일하고 꿈꾸고 사랑하라'
4강	4월 2주	인생관2	진로이야기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5강	4월 3주	사회관2	환경이야기 '당신의 물은 누구의 것인가?'
6강	4월 4주	역사관	역사이야기 '청년이 알아야 할 우리역사 이야기'
7강	4월29일 - 5월1일	디딤돌워크숍	경주역사탐방, 청춘멘토링, 미래특강
8강	5월 1주	미래관	미래이야기 '새로운 백년을 여는 청년의 상상력'
9강	5월 2주	인생관3	인생이야기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10강	5월 3주	책거리	성공이야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졸업식	6월4일	졸업	법륜스님 졸업특강, 수료증 수여

제8기 청년학교

**입학정원** 177명

**수료정원** 119명

**일 시** 2016년 9월 21일 ~ 12월 3일 (주1회, 10강)

**장 소** 서울 대전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진주 광주 총 10개 지역  
/ 전국 10개 청년학교 개설

구분	전국 청년학교									
	서울	대전	광주	대구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진주
입학정원	61	15	9	17	6	8	14	25	15	7
수료정원	37	13	4	9	1	6	10	21	14	4

일정		커리큘럼	
입학식	9월 4주	입학식	가슴 뛰는 만남, 청년학교를 소개합니다
1강	9월 24일 - 25일	첫걸음워크숍	인생나누기 '우리들의 청춘이야기'
2강	9월 5주	인생관1	연애이야기 '따로 또 함께' 쿨한 사랑학 개론
3강	10월 1주	사회관1	사회이야기 '마음껏 일하고 꿈꾸고 사랑하라'
4강	10월 2주	역사관	역사이야기 '청년이 알아야 할 우리역사 이야기'
5강	10월 3주	미래관	미래이야기 '새로운 백년을 여는 청년의 상상력'
6강	10월 28일 - 30일	디딤돌워크숍	경주역사탐방, 청춘멘토링, 미래특강
7강	11월 1주	사회관2	환경이야기 '당신의 물은 누구의 것인가?'
8강	11월 2주	사회관3	정치이야기 '누구를 위한 투표인가?'
9강	11월 3주	인생관2	인생이야기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10강	11월 4주	책거리	성공이야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졸업식	11월 28일	졸업식	법륜스님 졸업특강, 수료증 수여

## 2016 성년의 날 맞이 청춘콘서트 & 청춘박람회

2016년 성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도전·창조·협동 정신을 북돋우는 자리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청년주도형 시민캠페인 문화 발전과 확산을 위해 2030 청년세대가 주도하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시민과 멘토단이 후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청춘콘서트 5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 대한 공감과 상상의 열린마당으로 청춘콘서트를 준비하였고 청년세대들의 열정과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으로써 청춘박람회를 함께 기획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개요

**출 연 진** 청춘콘서트 - 법륜스님, 김제동, 박원순 시장, 노희경 작가, 김태우, 불빨간 사춘기, 아웃사이더, 요술당나귀, 김지수, 조문근밴드, 빅베이비드라이버, 버스터리드, 아마다스 / 청춘박람회 - 청년단체 82팀, 플리마켓 152팀, 푸드트럭 13대 참여

**일 시** 2016년 5월 21일(토) 12:00 - 22:00

**장 소** 서울시청 광장 & 무교로 일대

**사전신청** 15845명(\*청춘버스 : 전국 16대)

**서포터즈** 495명 (총괄기획본부 52명 운영본부 61명 조직본부 22명 콘서트 250명 박람회 110명)

**모 금 액** 6,416,490 원



### 프로그램

시간			주요출연자 (안)
12:00	청춘박람회	청춘박람회 오픈	청년단체
12:00		개막식	박원순 시장·법륜스님·김제동·청년대표자
12:30		박람회 부스오픈	청년단체
13:00		청춘버스킹(작은콘서트)	버스킹 참여그룹
16:00		청춘토크	법륜스님
18:00		닫는마당	법륜스님·김제동
18:30		박람회 뒷정리	청년그룹
18:00	청춘콘서트	접수 및 입장	티켓부스 콘서트 접수 (입구)
19:00		여는마당	청년단체 대표 3인, 사회자 인사
19:20		꿈과노래①	조문근 (슈퍼스타K 시즌1 준우승)
19:40		행복토크①	박원순 서울시장
20:00		꿈과노래②	빅베이비드라이버 (신사의품격 OST참여)
20:35		행복토크②	법륜스님
20:45		꿈과노래③	버스터리드 (슈퍼스타K 시즌6 6위)
21:05		행복토크③	노희경 작가
21:15		꿈과노래④	김지수 (슈퍼스타K 시즌3)
21:50		행복토크④	MC 김제동
22:00		닫는마당	함께노래 : 요술당나귀, 박원순 서울시장, 법륜스님, 김제동, 청춘서포터즈
22:00		청춘버스 귀가	

## 김제동과 우리들의 마이크

“마이크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기 위해 방송인이자 (사)김제동과어깨동무의 이사장인 김제동 씨가 나섰다. 평화재단 청년포럼과 사단법인 김제동과어깨동무가 공동주최한 공익콘서트《김제동과 우리들의 마이크》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대학 및 지자체, 3백 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 4천 여 명의 관객과 함께하였고, 참가한 관객들이 일상 속 이야기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 I 개요

- 취지**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공론화하는 열린광장
- 내용** 전국 총 9개 지역 콘서트, 2016년 4월 16일 ~ 5월 15일 5주 간 진행
- 관객** 총 4,227명 참가(서포터즈, 내빈 포함), 지역 서포터즈 297명 참가

### I 주요프로그램

시간	분	프로그램	출연자	세부사항
12:00	-	티켓 배부시작/입장시작	-	
12:00	55	입장음악&사전안내	사회자	입장 음악(50분) 사전안내
12:55	10	여는 영상&여는 공연	-	여는 영상
13:05	1	사회자 인사	사회자	음악 공연 2곡
13:06	9	오프더레코드	하하양 or 호호군	인사 / 김제동 소개
13:15	110	‘김제동과 우리들의 마이크’ (‘김제동의 소화제’)	김제동	‘오프더레코드’: 하하양 or 호호군 무대에서 이야기 그가 묻고 우리가 답한다 ‘핵노답’ (100분)
15:05	10	‘같이의 가치’	사회자/제동/ 요당/서포/공연자	김제동의 정리 이야기 ‘김제동의 소화제’ (10분) 요당의 어깨동무 주제가에 맞춰 노래 & 율동
15:15	3	‘우리가 어깨동무하는 이유’	사회자	김제동과 함께 ‘과수원길’ 노래
15:18	10	퇴장 / 퇴장음악	-	PT 공지: 후원회원 모집 / 현장 모금 / 5.21 청춘(3분)
15:28	20	모금 / 후원회원 부스 / 기념촬영	서포터즈	[자율모금]: 다음 마이크의 주인을 위한 모금입니다. [기념촬영]: 신속히 서포터즈 단체 촬영
15:48	30	뒷정리	서포터즈	정리



진행지역

일시	시간/지역	장소	객석	참여	서포터즈	모금
16.04.16(토)	13:00 성남	성남시청 온누리홀	601석	431명	43명	843천
16.04.17(일)	13:00 청주	청주대학교 청암홀	406석	346명	23명	641천
16.04.17(일)	19:00 대전	충남대학교 백마홀	450석	426명	25명	860천
16.04.24(일)	13:00 광주	광주시청 4층 대회의실	600석	413명	24명	1378천
16.05.08(일)	13:00 창원	창원대학교 85호관 대강당	400석	602명	32명	1074천
16.05.08(일)	19:00 부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500석	557명	38명	1055천
16.05.15(일)	13:00 울산	울산 상공회의소	450석	376명	40명	1008천
16.05.15(일)	19:00 대구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대강당	630석	645명	46명	732천
16.05.24(일)	19:00 전주	전주시청 강당	500석	481명	26명	1054천

## 2) 평화운동 | 평화통일 네트워크

한국정부의 갑작스런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중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의 항보와 해결능력이 없어보이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커져갔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주거나 갈등을 중재할 단체나 사회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력하나마 종교간 연대와 평화의 목소리를 내온 종교인들이라도 그 역할을 해보자는 문제의식은 점점 커졌다.

매월 모임을 하면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함,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풀어주는 길은 결국은 불통으로 꽁 막힌 정부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과 정치권에 합리적 해결을 요청하는 길이었다. 이를 위한 여러 모색을 해왔다.

10월과 12월에는 종교인모임이 주축이 되어, 종교·사회·정치 인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16년 하반기 연이어 불거지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원로들 22명의 시국선언의 실무를 지원하였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난맥처럼 펼쳐진 부정의 앞에 남북한의 문제나 급박한 외교문제를 풀어갈 현명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촛불로 타오른 국민들의 바람을 근본적으로 담을 방안과 부정한 권력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법들을 찾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개성공단 완전 폐쇄 및 사드배치 논란으로 군사적 파국으로 치닫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이 위기와 남북한의 팍 막힌 관계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비폭력운동으로 꺼져가던 민족의 기상을 되살려 전 세계에 독립과 평화의 염원을 알렸던 3.1운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평화와 화해,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취지로 523 명이 참여한 종교인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평화와 화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

일 시 2016년 2월 29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 사회자 김대선 (원불교 전 평양교구장)

시간	식순	내용
10:30	개회식 및 인사말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10:35	여는 말씀	“다시 3.1절의 의미를 오늘에 다시 새긴다” / 박남수 (천도교 교령)
10:40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언 / 5명	개신교 -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원로목사) 불 교 - 도법스님 (조계종 자정과 쇄신본부 본부장) 천주교 - 안충석 (원로사목자, 신부) 원불교 - 이정택 교무 (전 광주전남교구장) 천도교 - 임형진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10:40	성명서 낭독 / 5명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 전병금 (강남교회 목사) 불 교 - 지홍스님 (불광사 회주) 천주교 - 이영우 (해방촌성당 주임신부) 원불교 - 김현국 (신림교당 교무) 성공회 - 김현호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신부)
11:15	질의응답	기자와의 대화
11:30	마무리 발언	사회자
11:35	사진촬영	

### 3) 평화운동 |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



‘희망세상만들기 강연회’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고민과 의문들을 직접 강연장에서 묻고 지혜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자각하는 즉문즉설의 형식으로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즉문즉설 강연을 통해 개인은 행복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사회는 평화로워짐으로써 새로운 문명전환의 길을 여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가을강연은 ‘법륜스님과 행복한 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되어 추첨식 질문에 이어 영상질문이 추가되고 ‘법륜스님의 하루’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행복학교 가입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활동이 진행되었다.

총 68강중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강연이 11회 진행되었고, 총 5만여 명이 참가하여 흥겹고 즐거운 축제 같은 분위기속에서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별히 규격화된 강연의 형식 없이 질문자와 법륜스님이 묻고 답하며 자유롭게 즉문즉설이 진행되었고, 강연전체가 자원봉사로 이루어짐에도 고품격의 대중강연이 전국에서 이어져 참여 대중과 봉사자의 감동이 강하게 전해지는 강연이었다.

#### Ⅰ 개요

- 기 간** 2016년 3월 15일 ~ 12월 1일
- 강 연** 총 68강 (청년강연 포함)
- 참 가 자** 총 50,048명 (1회당 878명 참가, 청년강연 제외)
- 자원봉사자** 4,948명 (1회당 87명 참가, 청년강연 제외)

## 2016년 희망세상만들기 상반기 강연참가자 현황

기간 : 2016년 3월 15일 - 6월 8일

순서	날짜	요일	시간	일반현황		참가현황			
				지역	장소	좌석수	참가자 (봉사자제외)	참가율 (좌석수대비)	봉사자
1	16. 03. 15	화	19: 30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1,025	732	71%	102
2	16. 03. 29	화	10: 30	서초	더케이아트홀	998	730	73%	127
3	16. 03. 29	화	19: 00	대구	수성대 성요셉관 대강당	730	745	118%	80
4	16. 04. 19	화	10: 30	충주	충주 문화 회관	630	636	69%	50
5	16. 04. 19	화	19: 00	목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745	520	43%	48
6	16. 04. 21	목	10: 30	해운대	부산MBC 삼주아트홀	923	887	106%	94
7	16. 04. 21	목	19: 00	여수	여수 시민회관	636	600	63%	58
8	16. 04. 28	목	10: 30	수원	SK아트리움	1,200	865	91%	85
9	16. 04. 28	목	19: 00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	520	1,785	98%	80
10	16. 05. 03	화	10: 30	김천	김천문화예술회관	834	466	51%	61
11	16. 05. 03	화	19: 00	천안	천안시청 봉서홀	887	888	84%	60
12	16. 05. 05	목	18: 30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960	607	115%	70
13	16. 05. 10	화	10: 30	진주	경남과기대 100주년기념관	600	467	67%	63
14	16. 05. 10	화	19: 30	울산	울산 kbs홀	950	1,770	111%	90
15	16. 05. 12	목	10: 30	안양	평촌아트홀	865	918	144%	80
16	16. 05. 12	목	19: 00	파주	파주시민회관	1,817	797	89%	77
17	16. 05. 24	화	13: 30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문화홀	785	629	126%	53
18	16. 05. 24	화	19: 00	포항	포항문화예술회관	920	902	93%	75
19	16. 05. 31	화	10: 30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466	918	110%	76
20	16. 05. 31	화	19: 00	창원	창원KBS홀	1,807	1,932	107%	90
21	16. 06. 02	목	10: 30	인천	부평아트센터	888	1,025	131%	83
22	16. 06. 02	목	19: 30	분당	성남아트센터	530	1,862	103%	140
23	16. 06. 07	화	10: 30	노원	강북문화예술회관	607	811	122%	70
24	16. 06. 08	수	19: 30	부산	부산 kbs홀	692	3,068	108%	150
희망강연 중간 집계						25,883	24,560	95%	1,962

2016년 희망세상만들기 하반기 강연참가자 현황

기간 : 2016년 10월 4일 - 12월 1일

순서	날짜	요일	시간	일반현황		참가현황			
				지역	장소	좌석수	참가자 (봉사자제외)	참가율 (좌석수대비)	봉사자
1	16.10.04	화	10:30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606	580	96%	70
2	16.10.04	화	19:00	홍성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615	567	92%	53
3	16.10.06	목	10:30	인천	평생학습관 미추홀	577	544	94%	85
4	16.10.06	목	19:30	금천	금나래 아트홀	566	437	77%	50
5	16.10.18	화	10:30	김포	김포아트홀	503	576	115%	82
6	16.10.18	화	19:00	원주	백운아트홀	972	690	71%	127
7	16.10.20	목	10:30	안동	안동KBS홀	441	386	88%	55
8	16.10.20	목	19:00	군산	군산대 아카데미홀	820	650	79%	43
9	16.10.21	금	19:00	부사사하	사하구청 대강당	700	995	142%	93
10	16.10.25	화	10:30	용인	용인시청 에이스홀	525	461	88%	120
11	16.10.25	화	19:00	세종	세종정부청사 대강당	624	715	115%	79
12	16.10.28	금	19:00	경주	동국대 백주년기념관	460	455	99%	82
13	16.11.01	화	10:30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785	518	66%	130
14	16.11.01	화	19:00	송파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2,974	2,311	78%	246
15	16.11.02	수	19:00	충주	충주학생회관	740	430	58%	60
16	16.11.03	목	10:30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1,494	986	66%	95
17	16.11.03	목	19:00	청주	CJB미디어센터	1,000	880	88%	102
18	16.11.08	화	11:00	울산	자동차문화회관	450	444	99%	70
19	16.11.08	화	19:00	김해	김해시 문화체육관	1,500	1,101	73%	99
20	16.11.09	수	19:00	구미	금오공대 대강당	701	442	63%	62
21	16.11.10	목	10:30	대구 북구	대구과학대 영송문화관	728	653	90%	47
22	16.11.10	목	19:30	부산	부산KBS홀	2,847	2,469	87%	188
23	16.11.14	월	10:30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	802	662	83%	51
24	16.11.16	수	19:00	일산	엠블호텔 그랜드볼룸	920	850	92%	100
25	16.11.18	금	19:00	서울노원	노원구민회관	748	900	120%	105
26	16.11.22	화	10:30	진주	경남과기대100주년기념관	621	530	85%	93
27	16.11.22	화	19:00	마산	마산MBC홀	1,210	623	51%	99
28	16.11.23	수	19:00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	1,733	1,100	63%	150
29	16.11.24	목	10:30	서대문	은평구청 은평홀	500	624	125%	86
30	16.11.24	목	19:00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	1,100	751	68%	101
31	16.11.29	화	19:00	군포	군포문화예술회관	1,129	1,280	113%	88
32	16.12.01	목	10:30	전주	전북대 학술문화회관	592	380	64%	27
33	16.12.01	목	19:00	목포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965	498	52%	48
전국합계						30,948	25,488	82%	2,986

## 2016년 희망세상만들기 청년 강연참가자 현황

기간 : 2016년 3월 30일 - 11월 30일

순서	날짜	요일	시간	일반현황		참가현황			
				지역	장소	좌석수	참가자 (봉사자제외)	참가율 (좌석수대비)	봉사자
1	16.03.30	수	19:00	대학생	홍익대학교홍문관 가람홀	450	248	55%	24
2	16.04.20	수	19:00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608	288	47%	42
3	16.04.27	수	19:30	서울	강남구민회관	514	500	97%	58
4	16.05.04	수	19:00	부산	동아대학교국제관 다우홀	492	312	63%	52
5	16.05.11	수	19:00	부천	부천 송내 복사골 아트홀	470	144	31%	30
6	16.05.25	수	19:30	대전	대전시청 대강당	650	403	62%	35
7	16.06.07	화	19:00	대구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	661	673	102%	50
8	16.06.15	수	19:00	수원	경희대국제캠퍼스 르네상스홀	418	302	72%	22
9	16.10.26	수	19:00	인천	청운대학교 대강당 318호	500	175	35%	44
10	16.11.04	금	19:00	대구	대구메트로아트센터	180	222	123%	38
11	16.11.30	수	19:00	인천	평생학습관 미추홀	300	170	57%	20
전국합계						5,243	3,437	62.5%	415

## 4. 재정보고

## 5. 함께하는 사람들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 4. 재정보고

### 수입

(단위: 원)

계정과목	결산	내역
후원금	917,370,164	후원금
교육수강료	101,722,569	리더십아카데미, 청년학교, 열린아카데미, 기획강좌
모금수입	6,420,000	청춘콘서트
기타수입	41,077,184	이자, 인세, 유형자산처분이익, 환율차익, 잡이익 등
<b>수입계</b>	<b>1,066,589,917</b>	

### 지출

(단위: 원)

계정과목	결산	내역	
목적 사업비①	교육수익사업	101,093,892	리더십아카데미, 청년학교, 열린아카데미, 기획강좌
	연구사업	66,324,120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전문가모임, 정세토크, 현안진단, 워크샵 등
	평화운동사업	189,014,313	희망세상만들기, 청춘콘서트, 평화운동연대사업, 종교인모임 등
	해외정책교류	5,658,200	해외정책교류사업
	홍보비	6,517,230	후원회원관리, 연례보고서제작 등
	<b>소계</b>	<b>368,607,755</b>	
경상비②	운영비	312,003,952	임차료, 건물관리비, 일반운영비
	<b>소계</b>	<b>312,003,952</b>	
<b>지출계(①+②)</b>	<b>680,611,707</b>		
이월금③	385,978,210		
<b>지출합계(①+②+③)</b>	<b>1,066,589,917</b>		

## 5. 함께하는 사람들

- |      |               |                             |
|------|---------------|-----------------------------|
| 고문   | <b>서영훈</b>    |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
|      | <b>오 현</b>    | 백담사 회주                      |
| 지도위원 | <b>김명혁</b>    | 강변교회 원로목사,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
|      | <b>백낙청</b>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 <b>문규현</b>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
|      | <b>윤여준</b>    | (사)나를 만나는 숲 상임이사            |
|      | <b>도 법</b>    |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추진 본부장 |
|      | <b>스티븐 린튼</b> | 유진벨 재단 이사장                  |
|      | <b>김형기</b>    | 평화연구원장                      |
| 이사장  | <b>법 루</b>    | 정토회 지도법사                    |
| 이사   | <b>김홍신</b>    | 소설가,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
|      | <b>조 민</b>    | 평화교육원장                      |
|      | <b>추원서</b>    |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
|      | <b>조성식</b>    |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                 |
|      | <b>고경빈</b>    |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      | <b>조성렬</b>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 감사   | <b>김기진</b>    | 사단법인 JTS 대표,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
|      | <b>여영학</b>    |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
| 총장   | <b>노옥재</b>    | 사무총장                        |

- 연구원장**     **김형기**     평화연구원 연구원장
  
- 연구위원**  
(가나다순)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천**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 동용승**     오리엔탈링크 대표
- 박성하**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 송기용**     북컴 실장
-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 여영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 윤해동**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 이벽규**     거버넌스센터 상임이사
-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 이문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은주**     서울대학교 식물생태학과 교수
- 이재희**     소통과 거버넌스 연구소 소장
-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b>조민</b>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b>조성렬</b>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b>조한범</b>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최광수</b>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교수
<b>최용환</b>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b>홍현익</b>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자원봉사자

### · 연구원

이새롭 유미경 박경미 권이현 이옥숙 문희수 박정태 김호정 이원경 조수현 김상은 안은정  
서정례 이준호 하기완 배보람

### · 교육원

서민정 김원섭 서보나 윤보라 임은희 황은희 전해연

### · 사무국

노옥재 백혜은 김경희 최말순 이미은 이영재 정윤미 김기숙 주윤선 윤영화 이광희  
김막순 이승용 박영숙

### · 청년포럼

최광수 오태양 이주현 김정윤 이승헌 정은실 이동하 우인철 노숙경 오은정 이현정  
최시은 박수정 김소희 이성운 유애림 김나현 최지선